

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

미 증시, 고용 부진에 커진 리세션 우려 하락

Key Takeaways

- 나스닥 2.4% 하락하며 고점 대비 10% 하락 기록
- 7월 실업률 4.3% '예상 상회'...삼의 법칙(0.43%p→0.53%p) 충족
- 연준 '빅컷(50bp)' 인하 기대에 2년물 27bp나 하락

Summary

• **미 증시는 7월 고용보고서 부진과 애플·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소화하며 하락 마감하였음.** 7월 비농업취업자수는 11만 4천명을 기록하며 예상(+17만명)을 크게 하회하였고, 실업률은 지난달 4.1%에서 4.3%로 크게 상승함. 이에 실업률을 통한 경기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'삼의 법칙'은 지난달 0.43% 포인트에서 0.53% 포인트로 10bp나 상승하며 임계점(0.5% 포인트)을 상회하였음. 특히, 양적·질적 측면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7월 실업자수는 716.3만명으로 전월 대비 35.2만명이나 증가하였음. 이는 23년 8월(+43.6만명) 이후 최고 수준임. 또한, 항목별 실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임시 정리해고가 전월 대비 24.9만명, 명예퇴직도 10.3만명 증가해 각각 20년 12월,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. 이에 미 국제 수익률 곡선 전반의 하방 압력이 높아진 모습을 보인 가운데, 2년물은 전일 대비 27bp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임. 이는 고용시장 악화를 중심으로 미 경기 둔화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임. 실제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, 씨티는 오는 9월과 11월 연준이 각각 50b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였음. 또한 시장은 9월 빅컷(50bp) 가능성을 전일 22%에서 75%로 크게 상향하였음. 국제 유가 역시 침체 우려에 3.5% 하락한 반면, VIX 지수는 26%나 급등하며 지난해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함. (다우 -1.5%, 나스닥 -2.4%, S&P500 -1.8%, 러셀2000 -3.5%)

특징종목

• 아마존(-8.8%), 테슬라(-4.2%), 부킹홀딩스(-9.2%) 등 소비자 지출에 민감한 경기소비재(-4.6%)가 급락하며 22년 9월 13일 이후 가장 큰 일간 낙폭을 기록함. 이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음. 여기에 아마존은 양호한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재량 소비가 위축되고 고가 품목의 평균 판매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3분기 매출 전망의 하한선을 낮춤. 인텔(-26%)은 모든 부분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급락하였음. 회계연도 3분기 어닝쇼크와 4분기 가이던스 하향을 비롯해 10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, 전체 인력의 15% 이상 구조조정 및 4분기부터 배당금 지급 중단 등을 발표함. 스냅(-27%) 역시 양호한 2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광고 환경 약화와 3분기 예상보다 약한 전망에 급락함. 반면, 애플(+0.7%)은 예상을 상회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대형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(+) 수익률을 기록함. 또한 VIX 지수 급등에 따른 iPath S&P500 단기 선물(VXX, +24%), 국제 수익률 하락에 iShares 20+ 국채 ETF(TLT, +3.1%), 일본 엔화 강세에 따른 Invesco 일본 엔화 ETF(FXY, +2.2%) 등이 강세를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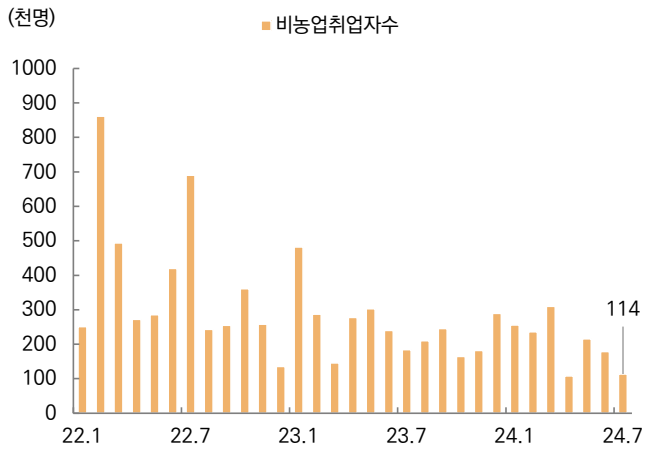
채권, 외환 및 상품 동향

•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확산은 연준의 피벗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킴. 특히, 오는 9월 FOMC 회의까지 약 7주 동안 침체의 우려가 더욱 커진다면 연준이 ① 중간에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하거나, 또는 9월 회의에서 ② 50bp의 빅컷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널리 확산됨. 이에 미 국제 2년물이 전일 대비 27bp나 하락하면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'강세 스티프닝(Bull-steepening)'이 나타남. 동시에 10년물과의 장단기금리 역전폭은 -8bp를 기록하며 2022년 7월 첫 역전 이후 최소폭을 기록함. 달러인덱스는 1% 넘게 하락하며 지난 3월 이후 최저를 기록함. 반면, 일본 엔화는 지난 한 달 동안 달러대비 10%나 절상(달러/엔 환율 하락)되며 주요국 통화중 가장 큰 가치 상승을 기록함. 한편, WTI 원유 선물은 200주 이동평균선(\$77.5)을 하회한 \$73.6을 기록하며 높은 하방 압력에 직면함.

한국증시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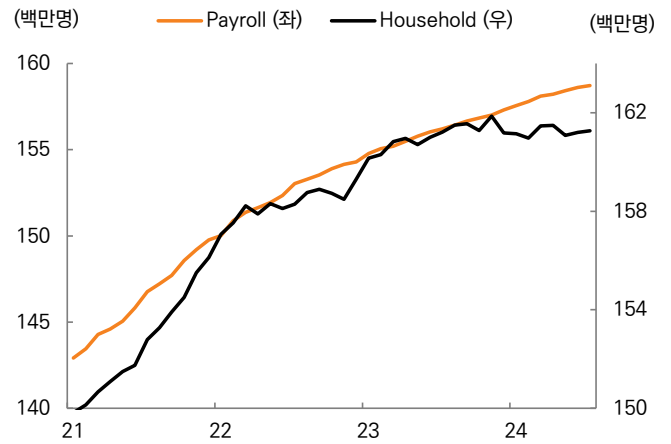
• MSCI 한국 지수 ETF는 2.7%, MSCI 신흥 지수 ETF는 1.4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,356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/원 환율은 전일 대비 1원 하락 출발 예상. Eurex KOSPI200 선물은 1.2% 하락 마감. 코스피 200 기준, 12개월 선행 PER은 8.9배, PBR은 0.89배로 각각 최근 10년 평균인 10.5배와 0.94배를 하회함. 밸류 측면에서는 매력적이지만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주목할 필요 있음.

그림 1. 미국 비농업취업자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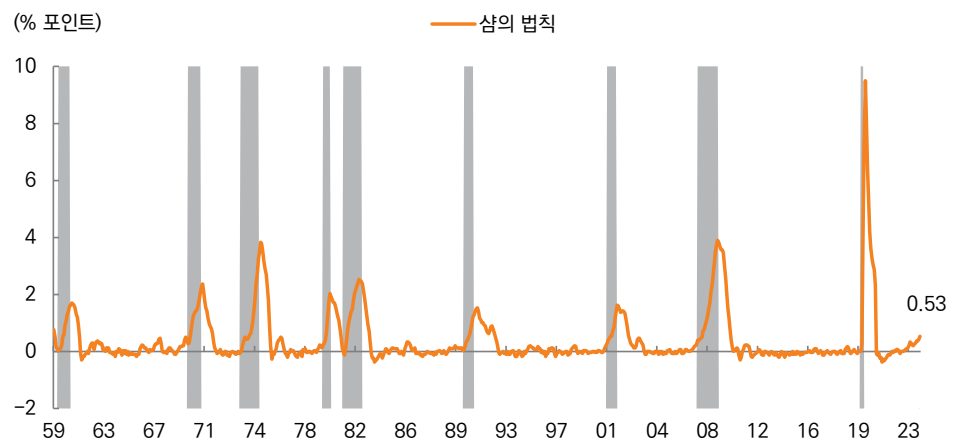
자료: BLS,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그림 2. 미국 고용: 두 지표 간 괴리 지속



자료: BLS,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그림 3. 경기 침체 진단의 임계점을 초과한 '삼의 법칙'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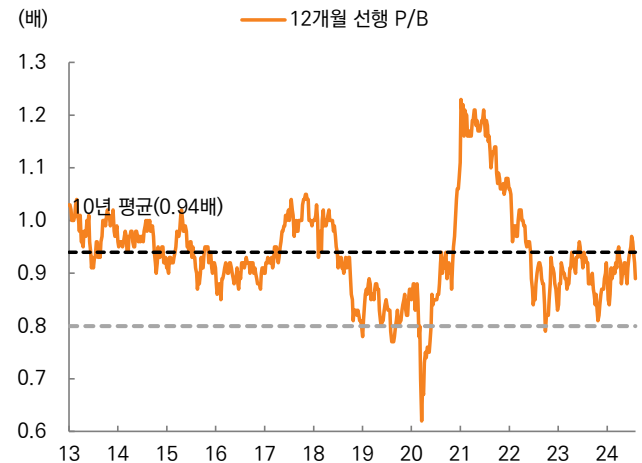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/ 주: 음영구간은 경기침체(recession)를 의미

그림 4. KOSPI200 선행 P/E



자료: QuantiWise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그림 5. KOSPI200 선행 P/B



자료: QuantiWise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Market Snapshot

주요 ETF

ETF 종류	등락률(%)	ETF 종류	등락률(%)
원유시추업체 ETF (XOP)	-5.1	대형 가치주 ETF (IVE)	-1.4
클린테크 ETF (CTEC)	-3.0	중형 가치주 ETF (IWS)	-2.0
소매업체 ETF (XLY)	-3.7	소형 가치주 ETF (IWN)	-3.4
온라인소매 ETF (EBIZ)	-3.0	대형 성장주 ETF (VUG)	-2.1
미국 인프라 ETF (PAVE)	-3.6	중형 성장주 ETF (IWP)	-2.3
핀테크 ETF (FINX)	-3.1	소형 성장주 ETF (IWO)	-3.6
소셜미디어 업체 ETF (SOCL)	-3.6	퀄리티 배당주 ETF (QDIV)	+1.5
클라우드 ETF (CLOU)	-2.9	신흥국 고배당 ETF (SDEM)	+0.5
사이버보안 ETF (BUG)	-1.9	신흥국 저변동 ETF (EEMV)	+0.3
전기차&자율주행 ETF (DRIV)	-4.1	미국 국채 ETF (IEF)	+1.5
글로벌 2차전지 ETF (LIT)	-1.7	하이일드 ETF (JNK)	-0.3
바이오섹터 ETF (IBB)	-2.0	신흥국 채권 ETF (EMBD)	+0.4
로봇&AI ETF (BOTZ)	-2.9	물가연동채 ETF (TIP)	+0.5
반도체 ETF (SMH)	-5.4	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(LQD)	+0.4

US Sector Index

S&P 500	Close	D-1(%)	D-5(%)	D-20(%)
필수소비재	850.74	+0.9	+1.2	+2.7
유틸리티	377.01	+0.1	+4.3	+8.2
부동산	262.65	+0.1	+2.8	+9.2
헬스케어	1,757.39	-0.2	+0.7	+4.4
소재	567.59	-1.9	-1.4	+2.5
커뮤니케이션	294.18	-1.9	+1.3	-8.7
IT	4,024.50	-2.0	-4.0	-10.7
산업재	1,038.80	-2.2	-2.8	+1.2
에너지	678.47	-2.3	-3.7	-1.6
금융	700.04	-2.4	-3.0	+1.4
경기소비재	1,414.01	-4.6	-4.3	-8.7

글로벌 FICC 동향

주요 상품	종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종가	D-1(%)	D-5(%)
WTI	73.52	-3.7	-4.7	Dollar Index	103.21	-1.2	-1.1
브렌트유	76.81	-3.4	-4.3	EUR/USD	1.09	+1.1	+0.5
천연가스	1.97	-0.1	-1.9	USD/JPY	146.53	-1.9	-4.7
금	2,469.80	-0.4	+1.7	GBP/USD	1.28	+0.5	-0.5
은	28.39	-0.3	+1.3	USD/CHF	0.86	-1.6	-2.8
알루미늄	2,276.07	+0.6	+1.1	AUD/USD	0.65	+0.2	-0.6
전기동	9,087.00	+0.3	+0.7	USD/CAD	1.39	-0.0	+0.3
아연	2,662.00	+0.3	+0.9	USD/RUB	85.34	-0.3	-0.9
옥수수	403.25	+1.2	-1.6	USD/BRL	5.73	-0.3	+1.3
밀	539.00	+1.3	+3.0	USD/CNH	7.16	-1.2	-1.4
대두	1,027.25	+1.1	-2.0	USD/KRW	1,356.00	-1.0	-2.0
커피	230.50	+1.4	+0.1	USD/KRW NDF1M	1,356.02	-0.8	-1.9
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	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3.79	-18.6	-40.4	스페인	3.06	-3.0	-17.2
한국	2.97	-4.2	-13.4	포르투갈	2.86	-4.1	-19.4
일본	0.95	-9.1	-11.7	그리스	3.31	-0.6	-13.3
독일	2.17	-7.0	-23.3	이탈리아	3.63	-1.4	-13.2
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